

우리나라에서의 ISBN 활용사례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Problems of ISBN System

이재원, 한국체육대학교
최원태, 건국대학교

Lee Jae-won,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Physical Education

Choi Won-tae, Kon-kuk University

ISBN은 완전 자동화 된 도서 유통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ISBN 활용사례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도서의 출판에서 독자에게 이르는 출판정보의 유통과정을 통합하여 출판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판유통의 정보화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1. 서론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국제표준도서번호)은 국제적으로 표준화 된 규칙에 따라 출판물마다 각각의 고유한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발행되고 있는 모든 출판물의 식별을 명확하게 해 주며 발행된 출판물의 거래를 촉진시키고 서지적 정보유통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이두영 1993).

ISBN은 1965년 영국의 최대 서점 체인인 W. H. Smith & Son Ltd가 컴퓨터로 상품을 관리하는 획기적인 신 점포를 계획하면서 체계화되고 표준화된 도서번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67년에 ISBN의 전신인 SBN(표준번호)의 완성을 보았다. 이 도서번호 제도는 1967년 런던의 J. Whitaker사에 의해서 이용되기 시작하였고 미국은 1968년 R. R. Bowker사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세계의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1972년 정식으로 "ISO 규격 2108호"로 확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ISBN 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ISBN

의 활용을 유도함으로써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출판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판유통의 정보화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2. ISBN의 구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1. ISBN의 목적과 구조

ISBN의 목적은 첫째, 세계적으로 발간되는 모든 자료에 유일한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언어나 문자의 서로 다름에 관계없이 지정하는 자료를 명백하게 식별하도록 한다. 둘째, 자료의 발행시 이 고유번호를 분명하게 표시함으로써 제작단계에서부터 유통단계에 이르는 모든 사무를 효율화한다. 셋째, 발행된 자료의 서지적인 정보를 고유번호와 결합시켜 정보유통에 정확성을 기한다(현규섭 1988).

우리 나라의 ISBN 구조는 10자리의 ISBN에 5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사용한다(국립중앙도서관 1994).

ISBN 89 - 7383 - 016 - 3 03220
국별번호 발행자번호 서명식별번호 체크기호 부가기호

2.2. 우리나라의 ISBN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10월에 개정된 도서관법 제18조에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ISBN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90년 7월에 한국문헌번호센터를 설치하여 1991년 10월부터 발행자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한국문헌번호센터는 출판사로부터 국제표준도서번호(발행자번호) 신청서를 제출받아 심의를 거쳐서 발행자 번호를 배정하고 출판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발행자 번호를 배정 받은 출판사는 자사의 출판물에 대한 한국도서번호 통보서를 한국문헌번호센터에 통보하고 한국도서번호-도서등재부를 기록·관리한다. 다시 한국문헌번호센터는 출판사에서 통보된 한국도서번호통보서를 토대로 하여 한국도서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한국도서번호 데이터베이스와 출판사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상업적인 PC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되고 있으며 서점, 서적유통업체에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POS 시스템 등의 활용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도서관에서도 MARC 데이터가 지원이 되지 않아 검색기능 이외에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

3. 우리나라에서의 ISBN 활용사례

3.1. 출판사에서의 활용

출판계는 ISBN의 기본매체인 도서의 출판은 물론 ISBN 코드를 소스마킹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출판사에서는 ISBN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출판사에서의 ISBN 코드 이용은 제작관리, 원가관리, 재고관리, 수주·출하 등의 제 분야에 걸쳐 있다(流通システム開發センタ 1996a).

영진출판사에서는 ISBN을 이용한 도서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출판도서의 유통관리 및 거

래처 관리 등 사내의 전반적인 업무를 이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 영진출판사의 도서관리 시스템은 도서등록, 도서조회, 입고기록, 반품기록, 출고기록, 입출고 수정, 거래처 관리 등으로 메인화면이 구성된다. 도서등록 화면에서는 영진출판사에서 출판된 도서를 등록하는 화면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단계가 되며 ISBN 코드가 관리번호(Control key)가 되고 자료구분, ISBN 부가기호에 의한 주제분야, 분류, 도서목록, 도서명, 저자, 가격, 판차, 판형, 쪽수, 발행일 등이 입력된다. 또한, 관리번호인 ISBN 코드를 'ISBN Bookland EAN'으로 변환하여 바코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각종 보고서인 월별 출고현황, 도서별 출고현황, 업체별 출고현황, 업종별 출고현황, 거래명세별 현황, 금일 출고현황 등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설계하였다.

3.2. 유통업체 및 서점에서의 활용

POS(Point of Sales)시스템이란 광학적 자동판독 방식의 레지스터에 의해 단품별로 수집된 판매정보와 매입, 배송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하여 각 부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가공·전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流通システム開發センタ 1996b). POS시스템은 소매점포에서 수·발주와 재고관리, 매상관리와 고객관리 등 막대한 양의 유통·판매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주고 단품별로 판매정보를 즉시 파악하여 경영과 판매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안된 소매점의 종합경영정보시스템이다.

서적 유통업체에서는 한국출판협동조합이 ISBN을 활용한 도서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수·발주관리, 재고관리, 단품관리, 대금관리, 판매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주)한국출판유통 등 대부분의 유통업체에서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서점업계에서는 최초로 1988년 (주)월드북센터가 POS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

며 현재에는 중·대형 서점에서부터 소형 서점에 이르기까지 점차로 POS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추세에 있다(임현화 1993).

주요기능	기능별 업무내용	출판사	도매서점	소매서점
수·발주 기능	거래처별 수·발주관리 도서별 수·발주 관리	●	●	●
재고관리	거래처별 입·출고관리	●	●	●
	거래처별 반품관리	●	●	●
	도서별 입·출고 관리	●	●	●
	도서별 재고관리	●	●	●
	도서별 반품관리	●	●	●
	거래명세표 발행	●	●	●
	주문 대비 입·출고 현황	●	●	●
대금관리	거래처별 수금관리	●	●	●
	거래처별 미수/미지급 관리	●	●	●
	거래처별 입금 관리	●	●	●
판매관리	판매 및 교환판매			●
판매현황	장르별, 고재별 판매현황	●	●	●
	도서판매 현황	●	●	●
	베스트셀러 현황	●	●	●
도서정보 관리	신간 관리 및 조회	●	●	●
	도서현황	●	●	●
	거래처 관리	●	●	●
	가격변동 관리 및 조회	●	●	●

<표 1> POS시스템의 주요기능별 업무내용

교보문고는 ISBN계도가 정착이 안된 관계로 인스토퍼마킹에 의한 POS시스템을 운영하다가 1996년에 개점15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표준번호인 ISBN에 따른 POS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판매, 재고관리, 주문, 도서대금 산출 등 영업관리 부문은 물론 도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출판유통 전반에 관한 과학적 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교보문고의 POS시스템은 도서가 입고되면 검수를 거쳐서 도서를 조별로 분류한다. 분류된 도서는 신간이나 구간이나에 따라 도서정보를 입력하며, ISBN코드가 정상적으로 마킹된 도서는 매장으로 옮겨지게 되고, ISBN코드가 없거나 잘못 마킹된 도서는 자체코드로 인스토퍼 마킹하는 작업을 거쳐서 매장으로 옮겨져서 판매하게 된다. 매장에서 판매되는 도서는 판매원이 스캐너로 ISBN코드를 판독함과 동시에 ISBN코드 및 가격파일을 검색하여 서명, 가격 등이 기록된 영수증을 출력시키고 동시에 관련된 모든 파일을 갱신시켜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발주 업무와 재고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는 도서의 ISBN

소스마킹율이 80퍼센트 정도이며 그 중에는 마킹이 잘못된 도서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자체코드로 인스토퍼 마킹해서 적용하며 교보문고에서 인스토퍼 마킹하는 경우는 첫째, ISBN 코드가 마킹이 안된 도서. 둘째, ISBN 번호만 있고 바코드를 병기하지 않은 도서. 셋째, 바코드가 마킹되어 있으나 잘못 마킹된 경우(중복된 경우도 포함). 넷째, 개정판에 새로 ISBN을 부여받아 마킹한 경우 등이다.

3.3. 인터넷 가상서점에서의 활용

이제 인터넷상에서 책을 구하는 것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미국의 Amazon, 영국의 iBS 등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상서점이고 이 외에도 수천개의 가상서점이 영업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서점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가상서점을 개설하여 전 세계의 독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서울문고 등 많은 서점들이 가상서점을 개설하고 있으며, 일부 출판사에서 가상서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상서점에서 ISBN은 검색과 주문서 작성에 주로 이용된다. 가상서점에서의 검색 키는 서명, 저자, 출판사, 키워드 등과 함께 ISBN이 이용되고 있으며 주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ISBN을 이용하면 서명이나 저자, 출판사 등 모든 서지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3.4. 도서관에서의 활용

도서관에서 수서를 함에 있어서 입수가능한 종합적인 서지정보자료인 'Books in Print'와 같은 수시로 정가나 기타 서지사항을 최신정보자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수서업무에 있어서 더 없이 효과적일 것이다. 도서의 주문시에도 서명, 저자, 출판사 등을 생략하고 ISBN 하나로서 서점계와 연결이 가능하며 모든 서지적인 사항을 대신할 수가 있다. 세계

각국의 ISBN 관리기구가 발행하고 있는 'Books in Print'는 망라된 입수가 가능한 판매도서 목록으로 그 나라 서지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실을 하고 있다.

국제표준서지기술법(ISBD)에서는 ISBN을 목록의 기술요소로 채택하고 있으며 영미목록 규칙(AACR2)이나 일본의 목록규칙에서도 ISBN을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OR MARC이나 US MARC에서는 020Tag에서 ISBN을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많이 이용하는 분담목록이나 데이터베이스(Bibliofile, CatCD 등)를 검색할 때에도 ISBN이 많이 사용된다.

또한, ISBN은 유일한 값이므로 간략서지사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세서지사항을 검색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학술정보시스템, 인터넷 가상서점 등에서 가장 간단하고 정확한 검색키로 활용이 되고 있다.

납본도서의 확인절차로도 ISBN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과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체크하여 ISBN이 부여된 도서의 납본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납본된 경우에는 납본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4. 결론

ISBN은 도서의 출판에서부터 독자의 손에 전달되는 과정 즉, 출판사, 유통업체, 서점, 도서관, 독자로 이어지는 서지정보의 유통과정에서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또한 구축된 ISBN 데이터는 실제 출판물을 대상으로 기술되고 목록된 데이터베이스와의 상호 연결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ISBN 번호로서 구축된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검색,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데이터가 모든 사람에 의하여 접근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접근 및 데이터 활용에 제한이 없어야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자체 업무 전산화와 상업적 목적의 PC통신의 검색용으로만 이용이 될 뿐 실제 유통과정에서는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ISBN을 서지정보의 Key 값으로 활용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출판사, 유통업체, 서점, 인터넷 가상서점에서도 같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각 업체마다 경쟁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중복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ISBN이 소스마킹되어 있음에도 다시 인스토퍼 마킹하여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도서에 대한 소스마킹을 독려하고 유통과정 전 분야에서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완전 공개하여 데이터의 중복 입력으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야 한다. 또한 출판사 및 유통업체에서도 ISBN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제도를 답습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궁극적으로 ISBN 시스템이 자동화된 출판물 유통시스템을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관련 조직, 업체에서의 자발적인 참여, 관심, 협력, 투자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이두영. 1993. 출판유통론. 서울 : 청한.
- 현규섭. 1995. "ISBN제도의 발전방향." ISBN 적용 POS시스템 운영사례 발표회 자료집
- 현규섭. 1988. "국제표준번호(ISBN·ISSN) 제도의 기본방향 분석." 도서관 294('88.2)
- 流通システム開発センター-流通コードセンター. 1996. "出版バーコードの課題と展望 : 業界情報化のためのインフラ整備."
- 임현화. 1993. "효율적인 서점업무 처리를 위한 인스토퍼마킹 코드 설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립중앙도서관. 1994. 한국문헌번호편람 ISBN·ISSN.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